



# 해외양돈뉴스

- 홍보부 -

**미국** 향후 돈육생산 증가, 세계 최대의 수출국 될 듯.

- 97/98, 자국소비의 감소로 수출량 증가 예상  
세계 돼지고기 시장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빠른 속도로 증대되고 있다. 양돈농가와 가공업자들이 대형화되면서 가격변동률이 줄어들고 있고, 그에 따라 양돈농가의 전출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돼지생산은 1990년대 초에 대폭 구조조정 됐지만 생산량은 지난 5년에 걸쳐 약 790만톤에 이르러 큰 변화없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돼지고기 생산량은 향후 7~10년에 걸쳐 약 170만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소비는 약 100만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도 약 70만톤 증가해 약 110만톤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여 미국이 세계 최대 돼지고기 수출국으로 변모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국의 수출은 돈콜레라로 인한 손실 때문에 1997/98년에는 280,000톤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돈육의 수출은 유럽 동맹국과 대만을 제외한 모든 수출국에서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세계 돼지고기 가격 인상으로 인한 소비의 감소에서 기인된 것이다. 하지만 대만의 경우 구제역이 발병되기 전에 1997년에 수출된 생산을 기준으로 수출은 1997/98년에서 1998/99년까지 계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보이며, 유럽 동맹국의 수출도 역시 3.41% 내지 4.95% 정도는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수출 못지않게 수입량도 많은데 주로 캐나다산 돼지고기를 수입하고 있다.

닭고기 식중독균 검출, 소비에 영향을 미칠 듯

미국내 유통되고 있는 닭고기가 인체에 치명적인 캄필로 박테리아균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져 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한국내 미산 닭고기 수입업체들은 물론 국내 업체도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뉴욕타임즈지에 따르면 미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닭고기가 캄필로 박테리아에 감염돼 매년 최고 8백명 가량이 목숨을 잃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 보건당국은 미 전역에 유통되고 있는 닭고기의 최고 90%가 이 균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양돈협회, 양돈장 냄새제거 프로그램 보급

미국양돈협회(NPPC)는 양돈장 운영에 따른 냄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조금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환경개선 방안을 실시하고 있다. 양돈장 냄새제거 프로그램은 미네소타주와 아이오와, 미조리, 노스 캐롤라이나주 등 4개주에서 10월초에 시작되었다.

미국양돈협회 부회장인 얼 도스틴씨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각 주의 6개 양돈장에서 적용되었으며, 내년 봄까지 모든 주의 양돈인들에게 공급될 것이라고 한다.

이 프로그램은 현대의 양돈업이 직면하고 있는 환경적인 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양돈자조금위원회와 합동으로 미국양돈협회에 의해 시행되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개선 프로그램은 미국 농업단체에

서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이 냄새제거 프로그램은 농장의 냄새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환경공학 기술자 등 세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팀이 농장을 방문하여 냄새를 최소화 시켜주는 적절한 방안을 제공한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미국양돈협회가 제공한다.

## 일본 분뇨처리문제가 양돈장 경영에 가장 큰 걸림돌

일본 양돈인들은 분뇨처리를 양돈장 경영의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꼽았다. 일본 전국양돈협회가 14개 현의 70개 양돈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양돈경영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양돈경영의 가장 큰 문제점 열거에서 분뇨처리가 가장 어려운 점이었고, 그 다음은 냄새, 질병, 사료가격, 후계자 부족, 지육의 상등급비율 저하, 차입금, 노동력 부족, 종돈 도입비용, 비육돈 생산비 등의 순서였다.

이것은 양돈장의 규모 크기에 관계없이 나왔다. 기술적인 문제로 연간 모돈 1두당 평균 비육돈 출하 두수는 19두였고 목표는 22두였다. 비육돈의 지육등급 비율을 보면 상등급이 53%, 중등급이 35%, 보통 등급이 12%였다.

## 돼지고기 2001년까지 계속 수입량 증가할 듯

일본은 1996년에 돼지고기를 93만톤을 수입해 단일 수입국으로서 세계 최대 수입국이 되었으며, 중기(1997-2001)적으로 국내 돼지고기 생산이 줄고 소비가 증가하면서 수입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일본의 돼지고기 수입은 과거 3년 동안의 평균 돼지고기 수입량을 19% 이상 초과할 때에는 추가관세가 부과되는 시장보호체제(safeguard mechanism)에 영향을 받았었지만,

1997년 7월 1일부로 해제되어 수입가격이 20% 가까이 하락한 것에 근거를 둔 것이다.

## 14년전 정액을 이용한 인공수정 성공

일본 이바라기현 양돈시험장에서는 건강한 돼지의 우수한 정액을 활용한 종돈개량작업을 예전부터 계속해 왔었는데, 이번에 이 양돈시험장에서 14년전에 동결시킨 정액으로 새끼돼지를 낳았다.

동결정액은 이론적으로는 반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실험으로 14년이라도 이상이 없는 것이 증명돼 현지에서는 세계 기록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또 막 태어난 돼지 새끼 두수, 체중도 일반 정액을 사용한 경우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현재의 계획중인 돼지 종축개량은, 일반적으로 돼지의 성장을 촉진하며, 다산(多産)과 질병에 강하게 만드는 것이 중점 사항이다. 이 실험에 사용한 동결정액은, 1983년에 렌드레이스종의 정액을 페렛법으로 냉동제조한 것으로 4마리의 어미 돼지에게 순차적으로 인공수정하였는데, 3마리가 착상되어 수정되었다. 또 수정결과 각각 5마리, 8마리 11마리가 태어났는데 24마리의 평균 체중도 일반 동결수정란과 차이가 없어서, 앞으로의 종돈개량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 “농림수산·환경청” 통합개편 제시

일본 자민당 행정개혁추진본부는 농수성과 환경청을 통합해 “농림수산·환경청”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자민당은 최근 행정개혁심의회가 농림수산성을 국토보전성으로 개편하고 환경청을 새롭게 만드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 이러한 안을 제시했다.

## 대만 돼지고기 가열처리육·가공품 일 본수출 계획

대만산 돼지고기 가열처리육 및 가공품이 일본으로 수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대일 돈육 수출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농수성 축산국은 대만 당국으로부터 대만산 가열처리육 및 가공품에 대한 지속적인 수입요청에 따라 지난 10월 28일 수입과 관련된 가축 위생조건안을 제시했다. 일본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3월 20일 돼지 구제역 발생으로 우제유 육류 및 가공품 등에 대한 수출이 전면 금지됐으나 그동안 대만 당국의 방역대책으로 지난 7월 15일을 끝으로 발생 사실이 없었다는 데 기인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3개월 이상 발생 사실이 없는 점을 감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기초로 가열처리육 및 가공품에 대한 수입을 검토키로 했다. 수입조건안에 따르면 농수성 장관이 지정한 공장에 한하며, 농수성 장관이 정한 가열처리기준에 따라 대일 수출용 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제한된다.

한편, 대만은 돼지 구제역 발생으로 현재까지 약 6천개소의 양돈장에서 1백1만두가 발병, 약 4백만3만두가 폐사 또는 살처분 되었다. 일본의 대만산 가공품 수입은 구제역 발생 이후에도 소량 통관됐으나 이 물량은 구제역 발생 이전에 수입돼 보세창고에 보관돼 있던 것으로 구제역 발생 이후는 육류는 물론 가공품 수입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 덴마크 일본에 냉장육 공급 늘어날 듯

덴마크는 냉동제품으로 제한된 일본시장에 추가로 돈육을 공급할 예정이지만, 일본의 안전점검체계에 의해 시장을 완전히 점유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덴마크는 유럽동맹국 시장에 이미 생돈(生豚)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덴마크는 높은 생산단가 때문에 시

이 지날수록 일본마켓을 위주로 생돈공급 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

1997/98년에 일본은 돼지질병(구제역, 돈콜레라) 발병전보다 감소된 40,000톤에서 47,000톤의 돈육을 수입할 것으로 보인다.

## 캐나다 돈육수출 강국 부상

### - 미국에 대한 생돈수출 증가

캐나다가 돼지고기 수출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91년 4억4천만 달러어치의 돼지고기를 수출한 캐나다는 지난해에는 7억5천만 달러어치, 올해는 약 9억8천만 달러어치의 수출이 예상되고 있다. 수출비중이 높은 곳은 미국과 일본으로 지난해 각각 5억1천4백만 달러, 1억8천3백만 달러어치를 각각 수출했으며 한국으로는 1천5백만 달러어치를 수출했다. 특히 캐나다는 북미자유무역국으로 형성돼 있는 3억여명의 북미자유무역기구(NAFTA) 국가들의 시장에 수출확대를 꾀하고 있어 자국내에서도 양돈업은 유망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미국에 대한 생돈수출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몇 년간 미국의 돼지 사육두수가 감소한 영향으로 미국의 가공업자들이 수입을 늘렸기 때문이다. 96년에 미국이 캐나다로부터 수입한 생돈의 숫자는 약 278만두에 달했는데, 이는 95년보다 59% 증가한 것이다. 또한 97년 상반기에도 약 20% 이상 증가했다.

## 네덜란드 돈콜레라 발생으로 자돈 급감소

네덜란드는 '97. 8월현재 50kg 미만의 자돈이 6백만마리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1.8백만 마리가 감소되었으며, '97. 4월에 비해서는 3.2백만마리가 감소되었다.

돈콜레라의 영향으로 이 시기(50kg미만)의 자돈이 정부에 의해 가장 많이 매입되었는데 '97. 4~7월사이만도 25kg 미만의 자돈 3.8백만마리가

매입, 처분되었다. 이로 인해 암태지도 감소되었는데 '97. 8월 현재 암태지수는 834천마리로 지난 '97. 4월보다 1/4로 감소되었다.

## 태국 세계를 겨냥한 돈육수출계획

세계시장에서 태국의 양돈 수출은 아직 한정적이거나 최근 조직된 생산업자들과 수출연합 농산물가공업자들은 태국의 양돈산업은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추측했다. 일년에 약 50만 톤의 돼지고기가 소비되는 동안 태국은 96년에 겨우 134.8톤의 수출을 했다. 그리고 1,279톤의 가공 돼지고기를 일본과 홍콩에 수출 143.29백만 바트의 수출 실적을 보였다.

이런 96년 태국의 돼지와 가공생산 무역은 향후 5년간 3.6백만톤(28%)까지 증가를 기대하는 세계시장의 요구에 비해 매우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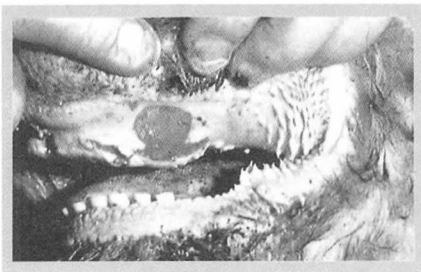
태국 양돈협회 분평박사는 태국 양돈과 가공생산에 정부가 도움을 준다면 가장 유력한 수출

시장인 일본으로의 수출이 보다 용이해 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협회는 이밖에 사료의 가격을 내리는 수출법의 개정과 관세 요금의 감소 그리고 잠재적인 무역 파트너들과 협상을 원활히 하기 위해 위생규정의 완화 등을 요구했다. 태국의 경우 일본으로의 운송비가 저렴하므로 미국이나 유럽 지역에 비해 수출에 유리한 잇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유행성 질병과 가축 전염병, 도살장과 생산, 포장기술의 평균수준 미달은 수입업자들 사이에 부정적인 부분으로 인식되어져 있다. 이에 수출진흥부 라체인 대표는 보다 넓은 세계시장으로 수출량을 늘리기 위해 동부 해안선에 돼지 사육 및 생산을 위한 산업용 토지를 개발하기 위한 정부계획 등에 대해 언급했다.

이 산업용 토지에는 냉동공장과 위생처리시설 등을 갖추게 될 것이며, 양돈 생산에 이상적인 위치인 라엠 차방 항구 근처에 자리잡게 되어 싱가포르 수출하는데 보다 유리한 입지임을 강조했다. **養豚**

## 분지캠페인



**“대만 돼지 구제역 발생  
‘강건너 불’이 아닙니다”**